

통일지향 시대의 대학

吳 正 受

(釜山女大 社會事業學科)

大學은 한 사회의 정신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대학의 정신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대학 이념도 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를 지향하는 대학', '민족이념의 대학' 등 다양한 표어들이 오늘의 대학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우리 대학은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4·19학생혁명과 1960~'70년대의 反獨裁 투쟁과 1980년대의 民主化運動 과정에서 대학은 항상 그 격동의 중심부에 있었으며, 대학은 진리와 정의의 편에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작금 국내의 정권적 차원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찾아가고 세계적 차원의 경제질서에 편입되면서 대학은 새로운 비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統一지향의 대학', '世界水準의 대학', '21世紀의 대학' 등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다양한 표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독자에 따라 견해가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통일지향의 대학'은 오늘의 대학이 당면한 우리 時代의 精神으로 제시하는 대표적인 이념이 아닐까?

더욱이 舊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급속하게 붕괴하고 새로운 세계질서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지구상에 유일하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의 대립에 의한 분단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統一의 理念은 분단된 국토의 하나됨 이상으로 우리 시대의 대학에 가치와 이념 정립의 난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지적인 대학의 시대적 이념의 저변에 흐르는 오늘의 대학의 정신적 기초는 무엇인가?

우리의 대학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이념과 가치 혼란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과거에는 냉전시대의 직접적인 영향하에 있었고, 현재는 통일문제를 시대적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의 대학 현실이 더욱 그러하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바른 인식과 大學의 役割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청되는 현실이다. 국토의 허리를 경계로 사회주의 체제의 북한과 접하여 있으며, 동시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동족간의 통일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회주의 붕괴 원인에 대한 성찰은 대학의 이념과 역할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혼허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는 경제적 효율성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주의 붕괴 원인은 人間의 本性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이며, 이타성과 협동에 기초한 사회주의형 인간 형성을 통해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는 하나의 종교였으며, 마르크스는 예언가였다는 슈페터의 지적은 매우 적절하였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원리는 인간의 이기성에 바탕을 둔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 이 양대 이데올로기의 假定에 대한 실험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자본주의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가정을 갖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종교와 예언은 빛나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견상 자본주의의 경제적 풍요와 성공은 인간 본성의 자유로운 발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념 자체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대한 放任으로 인하여 항상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 관한 마르크스의 예언의 실패가 자본주의가 기초하고 있는 信條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상대 체제를 敵으로 인식했지만 또한 양체제는 내부에 동일한 敵을 안고 있었다. 역설적인 사실은 자본주의가 체제의 부패를 체제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힘입어 견제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제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실패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외부에 존재하던 사회주의란 적의 견제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이제는 자기 內部の 敵을 스스로 통제해야 하는 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資本主義가 사회주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낮은 수준의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살아 남아있는 이유는 經濟的 效率性보다 더 중요한 곳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자유와 자율의 원리이며, 종교와 사상과 학문에 대한 자유의 보장을 통하여 인간의 이기적 동기가 자율적으로 통제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自由의 原理는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자본주의의 타락을 견제하고 체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社會主義는 이 자유의 원리를 허용하기보다는 억압과 통제로써 인간의 이기적 동기를 억누르고 이타성의 인간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보려고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기성에 기초한 경쟁과 자유의 원리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支柱인 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타성에 기초한 협동과 통제의 원리가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지주이다. 사회주의에서의 이타성과 협동의 가치는 높은 수준의 가치이지만, 이를 지탱하는 강제적 통제의 원리라는 지주가 인간의 이기성이라는 내적 본성에 비하여 너무 허약하였던 것이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비롯한 사회주의 이념의 창시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동일한 敵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강제적 통제보다는 자율적 통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내적 이기성과 자본주의의 저급한 속성을 규제하는 이러한 자유와 통제의 원리는 자본주의의 경제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한 大學의 가치와 이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대학은 창설의 초창기부터 그 이념적 기초로 학문적 진리와 자유를 존중하여 왔으며, 그것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다. 학문적 眞理와 自由를 추구하는 大學의 이념은 가변적이고 동태적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이념의 변화와는 달리 비교적 지속적인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가 비록 인간 본성

의 낮은 차원의 속성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대학의 이념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役割은 이기성에 기초한 사회적 현실을 비판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은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와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교회와 언론과 대학을 통해 구현된다. 이 제도들은 사회를 수호하는 최후의 비뚤목과 같다. 따라서 이들 제도의 도덕성이 타락하면 전체 사회체제의 붕괴는 건잡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일그러진 타락상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우리 대학에도 인간의 이기성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가치의 일그러진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변동과정에서 어떠한 의미로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학생운동의 이념적 지향과 문화는 퇴조하고 개인주의적·이기주의적 가치와 물질중심, 향락적 大學文化가 이를 대치해 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의 흐름에 편승하여 사회 전반에 자율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집단적 이익을 앞세운 주장의 분출이 난무하고, 집단간의 이해를 둘러싼 갈등 등은 당연한 현실로 되어버렸다. 이해와 관용보다는 불신과 아집이 사회 어느 곳에서도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대학사회에도 흘러 들어오고 있으며,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의 저급한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비뚤목으로서의 대학에서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의 가치가 대학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價値顛倒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그래도 통일의 이념이 대학의 시대적 이념이 되고 있지만, 통일 시대 이후에 대학사회를 떠받쳐 줄 이념이 부재할 때 대학과 사회 전반의 價値不在 또는 無價値의 현상이 우려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문화의 일부 조류는 벌써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대학의 근본 정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래에 도래할 고도의 과학과 정보, 테크놀로지 시대에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 개발과 전수를 오늘의 대학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학과 사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원동력은 대학의 현실적인 이념의 저변에 흐르는 진리와 자유라는 대학의 根本的 價値이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통하여 變轉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참과 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時代的 理念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시대적 이념이 대학 이념의 전부일 수는 없으며, 대학을 대학답게 하는 것도 아니다. 반독재투쟁 시대에 시대적 이념이었던 민주화의 이념이 민주화 시대에는 퇴조하는 것처럼 통일의 시대적 이념도 언젠가는 도래할 통일 이후에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진리와 자유의 가치가 살아 있을 때 또한 통일 시대 이후의 새로운 時代的 理念과 價値의 創造도 가능할 것이다. ▣